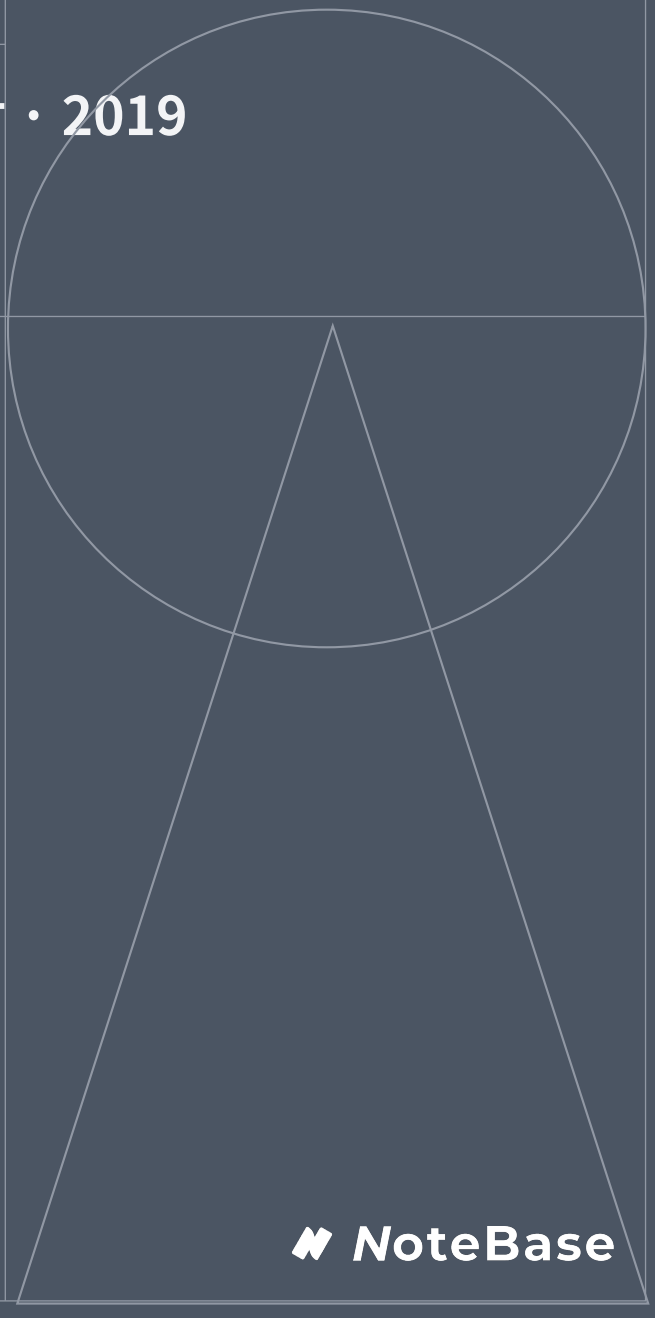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9

문 1. '재무제표의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서술형 정보는 당기 정보만 표시한다.

④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원칙 중 계속기업, 상계, 비교정보, 발생기준의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계속 영업을 이어 간다는 전제이며,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를 공시한다.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쇄해 순액만 표시하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처럼 자산의 평가조정을 반영해 장부금액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가 아니다.
비교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금액정보에 대해 전기 정보를 함께 표시하며, 당기 재무제표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서술형 정보도 비교표시한다.
재무제표는 현금흐름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로 작성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9

선지별 해설

① O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되면 이를 공시한다. 계속기업 가정은 의문이 생길 때 공시까지 요구하는 원칙이다.

② O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산가치의 평가조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계는 독립된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서술형 정보는 당기 정보만 표시한다"이다.
실제로는 당기 재무제표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서술형 정보도 전기 비교정보를 함께 표시한다. 따라서 모든 금액정보뿐 아니라 관련 서술형 정보도 비교표시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O
재무제표는 현금흐름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로 작성한다.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많은 수험생이 "모든 금액에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까지만 기억하고, 서술형 정보도 현재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하면 비교표시한다는 점을 놓치는 함정을 노린 선지이다. ②도 순액표시를 모두 상계로 오해하면 흔들리기 쉬운 지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일반문항은 키워드별로 판단한다. 계속기업은 의문이 있으면 공시하는지, 충당금 차감은 상계인지 아닌지, 비교정보는 서술형까지 포함하는지, 현금흐름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인지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계속기업은 의문 시 공시하고, 충당금 차감은 상계가 아니며, 비교정보는 서술형도 포함할 수 있고, 현금흐름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이다.

NoteBase

문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적시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해 주는 질적 특성이다.

④ 부채의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기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은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한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기타 채권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기본적 질적 특성이고,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부채의 의무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정상적 거래실무나 관행에서 형성되는 의제의무도 포함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은 정의에 맞고 인식기준을 충족한 항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는 것이다. 선지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인식의 뜻에 맞다.
② O: 일반목적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판단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지의 이용자 범위와 목적이 개념체계와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요성 및 적시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해 주는 질적 특성'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고,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④ O: 부채의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기대 형성으로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의제의무 설명으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중요성을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강적 질적 특성 목록에 넣는 착각이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은 '중요성'을 '이해가능성' 자리에 끼워 넣은 선택지를 고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적 특성 문제는 먼저 기본적 질적 특성 둘과 보강적 질적 특성 넷을 분리해서 본다. 보강적 질적 특성 자리에 중요성, 보수주의 같은 다른 개념이 들어가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은 목적적합성·충실한 표현, 보강은 비교·검증·적시·이해이다.

NoteBase

문 3.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는 원가법을 따른다)

①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다.

② 감자 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감소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기록한다.

③ 실질적 감자의 경우 자본금과 자산이 감소하며,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가 이월결손금보다 큰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와 형식적 감자·실질적 감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기주식 처분: 자기주식을 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처분해도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조정한다.
실질적 감자: 주주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감자로서 자본금과 자산이 함께 감소하며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 생길 수 있다.
형식적 감자: 결손 보전을 위해 장부상 자본만 줄이는 감자로서 자산 유출은 없고 감소액이 이월결손금을 넘으면 감자차익이 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다'이다.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낮게 처분하더라도 처분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관련 차액을 포괄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직접 조정한다.
2번 O: 감자 시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가 감소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자본 감소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3번 O: 실질적 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감자이므로 자본금과 자산이 함께 감소한다. 이때 자본 감소액과 지급대가의 차이에 따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 생길 수 있다.
4번 O: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는 자산 유출 없이 자본금만 줄여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자본금 감소액이 이월결손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감자차익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기주식 거래를 일반 자산처분처럼 보아 처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간다고 착각하면 1번에 걸린다. 감자는 자산 반환 여부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감자처럼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보이면 먼저 손익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부터 구분한다. 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을 지급하면 실질적 감자, 결손 보전만 하면 형식적 감자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조정이고, 실질적 감자는 자산 감소, 형식적 감자는 결손 보전이다.

NoteBase

문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의 분류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④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의 분류 체계와 예외적 평가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용어 풀이

만기상환가액은 부채를 만기에 상환할 때 지급할 금액을 뜻한다.
현재가치 평가는 장래 지급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해 현재 시점 금액으로 바꾸는 평가이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계약상 일정한 화폐액으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외화표시 부채이다.

핵심 구분

부채의 분류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이다. 반면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이지만, 장기연불조건 채권·채무처럼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구분을 잘못 적었다. 규칙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틀린 표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올바른 표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

2번 O
장기연불조건의 거래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시간가치가 중요한 장기거래에는 예외적으로 현재가치 측정을 적용한다는 규칙 내용과 맞는다.

3번 O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외화표시 금전채무는 보고일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4번 O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의 가액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현재가치평가나 외화환산은 그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선지는 맞다.

오답 포인트

1번의 함정은 부채 분류를 일반적인 유동·비유동 감각으로만 외워 두고 국가회계기준의 세부 분류인 장기충당부채를 빠뜨리게 만드는 점이다. 또 "기타유동부채"처럼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적으면 분류체계 자체가 틀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규칙형 문항은 먼저 분류 조문인지 평가 조문인지부터 나눈다. 분류를 묻으면 항목 이름의 전체 목록을 대조하고, 평가를 묻으면 원칙이 만기상환가액인지, 예외가 현재가치나 보고일 환율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부채는 네 갈래로 구분하고, 평가는 만기상환가액이 원칙이며 장기거래는 현재가치, 화폐성 외화부채는 보고일 환율을 적용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금실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100,000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 차이금액을 현금과부족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여비교통비로 20×1년 11월에 ₩120,000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결산일에 발견하였으며, 그 밖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현금과부족은 잡이익(잡손실)으로 보고하였다. (주)한국이 결산일에 할 수정분개는?

① 차변: 여비교통비 ₩120,000, 현금과부족 ₩20,000
대변: 현금과부족 ₩120,000, 잡이익 ₩20,000

② 차변: 현금과부족 ₩120,000, 잡손실 ₩20,000
대변: 여비교통비 ₩120,000, 현금과부족 ₩20,000

③ 차변: 여비교통비 ₩100,000, 현금과부족 ₩20,000
대변: 현금과부족 ₩100,000, 잡이익 ₩20,000

④ 차변: 현금과부족 ₩100,000, 잡손실 ₩20,000
대변: 여비교통비 ₩100,000, 현금과부족 ₩2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과부족의 임시처리 후 원인 발견분을 대체하고 남는 잔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금실사 결과 실제 현금은 장부상 잔액보다 100,000원 적다.
따라서 실사 시점의 임시분개는 차변 현금과부족 100,000원, 대변 현금 100,000원이다.
이후 미기록된 여비교통비 현금지급 120,000원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금액만큼 현금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진다.
원인 규명 후 남는 현금과부족 잔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마감한다.

계산 과정

1. 실사 시점 임시처리로 현금과부족 차변 100,000원이 발생한다.
2. 미기록 여비교통비 120,000원은 실제로 현금이 줄었지만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차변 여비교통비 120,000원, 대변 현금과부족 120,000원으로 정정한다.
3. 그러면 현금과부족 계정은 차변 100,000원에서 대변 120,000원이 반영되어 대변 잔액 20,000원이 남는다.
4. 대변 잔액 20,000원은 원인 불명 현금초과이므로 차변 현금과부족 20,000원, 대변 잡이익 20,000원으로 마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여비교통비 120,000원을 차변에 계상하고 현금과부족 120,000원을 대변에 대체한 뒤, 남은 대변 잔액 20,000원을 차변 현금과부족·대변 잡이익으로 마감하였으므로 옳다.

② X
현금과부족 120,000원을 차변에 둔 부분이 반대이다. 미기록 현금지급을 발견하면 비용을 차변에, 현금과부족을 대변에 두어야 한다. 또한 남는 잔액은 대변 20,000원이므로 잡손실이 아니라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틀린 표현은 '차변 현금과부족 120,000원, 대변 여비교통비 120,000원'과 '차변 잡손실 2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차변 여비교통비 120,000원, 대변 현금과부족 120,000원' 및 '차변 현금과부족 20,000원, 대변 잡이익 20,000원'이다.

③ X
여비교통비를 100,000원만 반영한 부분이 틀리다. 발견된 미기록 지급액은 120,000원 전액이며, 이를 모두 반영해야 현금과부족 계정에 대변 잔액 20,000원이 남는다. 틀린 표현은 '여비교통비 10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여비교통비 120,000원'이다. 남는 20,000원은 잡이익 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

④ X
초기 실사차액 100,000원만을 기준으로 다시 현금과부족을 차변에 두고 여비교통비를 100,000원만 인식한 것이 틀리다. 미기록 지급액은 120,000원 전액을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 결과 남는 금액은 잡손실이 아니라 잡이익 2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차변 현금과부족 100,000원, 대변 여비교통비 100,000원'과 '차변 잡손실 2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차변 여비교통비 120,000원, 대변 현금과부족 120,000원' 및 '차변 현금과부족 20,000원, 대변 잡이익 2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실사 시점의 100,000원 부족액만 보고 수정분개도 100,000원에 맞추려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원인 발견분 120,000원을 먼저 전액 대체해야 한다는 점과, 그 결과 현금과부족이 차변이 아니라 대변 20,000원으로 남아 잡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과부족 문제는 실사 시점 임시분개를 먼저 잡고, 나중에 발견된 원인 금액을 현금과부족의 반대편으로 대체한 뒤, 최종 잔액의 차변·대변 방향에 따라 잡손실인지 잡이익인지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현금과부족은 원인 발견분으로 먼저 대체하고, 남은 잔액이 차변이면 잡손실, 대변이면 잡이익이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6%이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를 인식하고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연도별 상각액은 20×7년도 ₩1,679, 20×8년도 ₩1,780, 20×9년도 ₩1,885이며, 상각액 합계액은 ₩5,344이다. 이 사채 발행 시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단, 사채발행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발행일: 20×7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
이자지급: 매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연 8% 이자 지급
발행가액: ₩105,344

① ₩5,344
② ₩18,656
③ ₩24,000
④ ₩42,656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율법에서 총 이자비용이 총 현금이자지급액에서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0원, 표면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 연 6%, 만기 3년, 발행가액 105,344원이다.
구해야 할 값: 사채 발행 시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할증발행이므로 매년 현금이자지급액보다 이자비용이 작고, 그 차이만큼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상각된다.

사용할 공식

총 이자비용 = 총 현금이자지급액 - 총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이다.
각 연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로 계산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할증발행사채는 액면이자율보다 낮은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이자비용은 현금이자지급액보다 작고, 그 차이가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년 현금이자지급액은 100,000 × 8% = 8,000원이므로 8,000원이다.
2. 총 현금이자지급액은 8,000 × 3 = 24,000원이므로 24,000원이다.
3. 총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1,679 + 1,780 + 1,885 = 5,344원이므로 5,344원이다.
4. 따라서 총 이자비용은 24,000 − 5,344 = 18,656원이므로 18,656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5,344원은 총 이자비용이 아니라 3년 동안 상각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합계액이다. 올바르게는 총 이자비용은 18,656원이다.
② O: 총 현금이자지급액 24,000원에서 총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 5,344원을 차감하면 18,656원이 된다. 따라서 발행 시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비용으로 맞다.
③ X: 24,000원은 3년 동안 실제 지급하는 총 현금이자액이다. 할증발행에서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작으므로 올바르게는 총 이자비용은 18,656원이다.
④ X: 42,656원은 총 이자비용이 될 수 없는 값이다. 총 이자비용은 총 현금이자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총 이자비용은 18,656원이다.

오답 포인트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과 이자비용을 같은 값으로 오인하면 ①에 끌리기 쉽다. 또 현금이자 총액 24,000원을 그대로 이자비용으로 보면 ③에 걸리므로, 할증발행에서는 현금이자와 이자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가 할증발행인지 할인발행인지 먼저 확인한 뒤 총 현금이자액을 구하고, 할증이면 상각액을 차감하고 할인이면 상각액을 가산하는 순서로 총 이자비용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증발행사채는 현금이자 > 이자비용, 할인발행사채는 현금이자 < 이자비용이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8년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30이고 20×8년 12월 31일에 매출채권 계정을 연령별로 채무불이행률을 검사하고, 다음의 연령분석표를 작성하였다. 20×9년 1월 10일에 거래처인 (주)부도의 파산으로 인해 매출채권 ₩4,500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 (주)한국이 20×9년 1월 10일 인식할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결제일 경과기간	매출채권	채무불이행률
미경과	₩90,000	1%
1일 ~ 30일	₩18,000	2%
31일 ~ 60일	₩9,000	5%
61일 ~ 90일	₩6,000	15%
91일 이상	₩4,000	30%

① ₩630

② ₩660

③ ₩690

④ ₩72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령분석으로 계산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과 실제 회수불능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인식할 대손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30원이다.
20×8년 말 연령분석에 따른 필요 대손충당금은
90,000 × 1% + 18,000 × 2% + 9,000 × 5% + 6,000 × 15% + 4,000 × 30% = 3,810원이다.
20×9년 1월 10일 실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매출채권은 4,500원이다.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말 필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각 연령구간 채권액에 채무불이행률을 곱해 합산한다.
추가 손상차손은 실제 회수불능액-사용 가능한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연령분석법이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잔액을 먼저 추정하고, 이후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그 충당금 잔액으로 우선 상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령분석표에 따라 20×8년 말 필요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3,810원이다.
2. 따라서 20×8년 말 조정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3,810원이다. 기초잔액 30원은 이 3,810원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3. 20×9년 1월 10일 실제 회수불능액 4,500원에서 대손충당금 3,810원을 먼저 차감하면 추가로 비용 처리할 금액은 $4{,}500 - 3{,}810 = 69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63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실제 회수불능액 4,500원에서 사용 가능한 대손충당금 3,810원을 차감하면 690원이므로 틀린 금액 630원 → 올바르게는 690원이다.
② X
660원은 20×8년 말 필요 대손충당금 3,810원에 기초잔액 30원을 다시 더해 사용 가능한 충당금을 3,840원으로 중복 계산한 오산에 가깝다. 사용 가능한 충당금은 3,810원이므로 틀린 금액 660원 → 올바르게는 690원이다.
③ O
20×8년 말 설정된 대손충당금 3,810원을 먼저 사용하고도 690원이 부족하므로 20×9년 1월 10일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690원이다.
④ X
720원은 20×8년 말 조정액 3,780원만 보고 기초 대손충당금 30원을 누락한 경우의 오답이다. 실제 사용 가능한 충당금 잔액은 3,810원이므로 틀린 금액 720원 → 올바르게는 690원이다.

오답 포인트

연령분석법으로 구한 3,810원은 대손상각비 자체가 아니라 20×8년 말에 남아 있어야 할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이 점을 놓치면 기초잔액 30원을 빼먹거나 중복 반영하여 720원이나 660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손충당금 문제는 먼저 연령분석으로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그 잔액을 먼저 차감한 뒤 부족액만 비용으로 잡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연령분석법은 기말 필요 충당금 잔액을 먼저 맞추고, 실제 대손은 충당금부터 사용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품목별로 저가법을 적용한다. 기초상품재고액은 ₩50,000, 당기총매입액은 ₩1,000,000, 매입할인은 ₩50,000이며, (주)한국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품목	수량	취득원가	예상판매가격	예상판매비용
상품a	2	@₩5,000	@₩7,000	@₩1,500
상품b	3	@₩8,000	@₩9,000	@₩2,000
상품c	2	@₩2,500	@₩3,000	@₩1,000

① ₩962,000

② ₩964,000

③ ₩965,000

④ ₩1,0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품목별 저가법으로 기말상품재고액을 구한 뒤 이를 반영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상품재고액 50,000원, 당기총매입액 1,000,000원, 매입할인 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품목별 저가법을 적용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 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는 당기에 판매 가능한 상품원가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원가를 차감해 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품목별 저가법이므로 기말상품재고액은 품목마다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순매입액은 1,000,000원 - 50,000원 = 950,000원이다.
2. 품목별 순실현가능가치는 상품a 2개 x (7,000원 - 1,500원) = 11,000원, 상품b 3개 x (9,000원 - 2,000원) = 21,000원, 상품c 2개 x (3,000원 - 1,000원) = 4,000원이다.
3. 품목별 저가법에 따른 기말상품재고액은 상품a 10,000원, 상품b 21,000원, 상품c 4,000원으로 합계 35,000원이다.
4. 따라서 매출원가는 50,000원 + 950,000원 - 35,000원 = 965,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962,000원은 기말상품재고액을 38,000원으로 본 값인데, 이는 상품b의 평가손실 3,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상품b도 순실현가능가치 21,000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2번: X. 964,000원은 총액 기준으로 원가 39,000원과 순실현가능가치 36,000원을 비교해 기말상품재고액을 36,000원으로 본 값이다. 문제는 품목별 저가법이므로 상품c를 원가 5,000원이 아니라 4,000원으로 따로 감액해야 한다.
3번: O. 품목별 저가법에 따라 기말상품재고액은 35,000원이고, 매출원가는 50,000원 + 950,000원 - 35,000원 = 965,000원이므로 맞다.
4번: X. 1,050,000원은 기초재고 50,000원과 총매입액 1,000,000원을 단순 합산한 값으로, 매입할인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순매입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반영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품목별 저가법이라는 문구를 놓치면 총액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품목의 평가손실만 반영해 오답이 나온다. 또한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을 차감해 순매입액을 구하는 절차를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평가 계산형 문제는 순매입액을 먼저 정리하고, 각 품목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한 뒤, 품목별 저가법인지 총액 기준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매출원가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품목별 저가법은 품목마다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순매입 - 기말재고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9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건물이 있었으며 20×9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9년 토지 취득원가는?

◯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가격 ₩1,000,000(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1)
◯ 토지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0,000
◯ 공장신축 전 토지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 ₩80,000
◯ 건물 철거비용 ₩50,000
◯ 건물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수입 ₩40,000
◯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100,000

① ₩960,000
② ₩1,110,000
③ ₩1,130,000
④ ₩1,21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철거 예정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취득원가에 포함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이 토지는 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되었고, 기존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철거 예정 건물이 붙은 채로 취득한 대가는 건물을 별도 자산으로 보지 않고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세 및 등기비용, 철거 순원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공장신축 전 토지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 80,000은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하므로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토지 취득원가 = 철거 목적 건물이 포함된 취득대가 + 부대비용 + 철거비용 - 폐자재 처분수입 + 영구적 토지개량비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철거하여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1로 토지와 건물을 배분하지 않고 일괄취득대금 전체를 토지 원가로 본다.

NoteBase

계산 과정

토지 취득원가 = 1,000,000 + 100,000 + 50,000 - 40,000 + 100,000
= 1,210,000
따라서 토지 취득원가는 ₩1,210,000이다.

선지 판단

1번: X. 960,000은 일괄취득가액 1,000,000을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1로 배분하여 토지분 750,000만 포함한 뒤 100,000 + 50,000 - 40,000 + 100,000을 더한 값이다. 이 문제의 건물은 철거 예정이므로 건물분 250,000도 토지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토지분만 취득원가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일괄취득대금 전체를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2번: X. 1,110,000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100,000을 누락한 값이다. 영구적 토지개량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하수도 공사비를 제외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해당 공사비를 가산한다.
3번: X. 1,130,000은 정답 1,210,000에서 토지 운영수입 80,000을 차감한 값이다. 공장신축 전 토지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은 토지 취득원가를 줄이는 항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운영수입을 원가 차감항목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별도 수익으로 처리한다.
4번: O. 철거 예정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괄취득대금 1,000,000 전체에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0,000, 철거 순원가 10,000,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100,000을 더하면 1,210,000이 된다.

오답 포인트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1이 제시되면 기계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배분하기 쉽다. 그러나 건물을 계속 사용할 자산인지, 철거 예정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또 토지 운영수입을 원가 차감으로 착각하거나 영구적 토지개량비를 누락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지 취득 문제는 먼저 건물의 사용 여부를 본다. 건물이 철거 예정이면 취득대가 전체를 토지에 넣고, 그다음 취득부대비용, 철거 순원가, 영구적 토지개량비를 더한 뒤 별도 영업수익 항목은 제외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철거 예정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원가의 일부이며, 철거 순원가와 영구적 토지개량비도 토지에 붙는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매월 말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0×9년 4월에 다음과 같은 자료 및 거래가 있었다.

(주)한국의 20×9년 4월 현금기준의 순이익과 발생기준의 순이익 차이는?

◯ 20×9년 4월에 상품을 ₩200,000에 판매하면서 ₩150,000은 현금수취하고 ₩50,000은 5월에 받기로 하였다.
◯ 20×9년 4월 1일 상품재고는 ₩50,000이 있었다.
◯ 20×9년 4월 중에 상품 ₩100,000을 구입하면서 ₩80,000은 현금 지급하고 ₩20,000은 5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9년 4월 30일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은 ₩10,000이다.
◯ 20×9년 4월 종업원 급여가 ₩10,000 발생하였고 결산일 현재 ₩5,000은 지급하지 않았다.
◯ 20×9년 4월 1일 향후 3개월 치 광고비 ₩3,000을 현금 지급하였고, 향후 2개월 치 임대수익 ₩2,000을 현금 수령하였다.

① ₩14,000
② ₩16,000
③ ₩18,000
④ ₩2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기준 순이익과 발생기준 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수익·비용의 인식시점 차이로 생기는 금액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상품 판매액 200,000원, 그중 현금수취 150,000원, 외상매출 50,000원이다. 기초재고 50,000원, 당기매입 100,000원, 기말재고 10,000원이다. 급여 발생액 10,000원 중 미지급액 5,000원이다. 광고비 3,000원은 4월 1일에 향후 3개월치 선지급액이다. 임대수익 2,000원은 4월 1일에 향후 2개월치 선수액이다.
구해야 할 값: 4월 현금기준 순이익과 발생기준 순이익의 차이이다.
주의할 조건: 현금기준은 실제 현금의 수취·지급만 반영하고, 발생기준은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미지급급여·선급광고비·선수임대수익을 기간귀속에 맞게 조정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현금기준 순이익 = 현금수익 - 현금비용
발생기준 순이익 = 발생수익 - 발생비용
상품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같은 4월 거래라도 현금의 이동시점과 수익·비용의 발생시점이 다르므로, 두 기준으로 순이익을 따로 계산해야 차이를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현금기준 순이익을 계산한다. 현금수익은 상품대금 중 현금수취액 150,000원과 임대수익 선수금 현금수취액 2,000원을 더한 152,000원이다. 현금비용은 상품매입 현금지급액 80,000원, 실제 지급한 급여 5,000원, 광고비 선지급액 3,000원을 더한 88,000원이다. 따라서 현금기준 순이익은 64,000원이다.
2. 발생기준 순이익을 계산한다. 발생수익은 상품매출 200,000원과 2개월 선수임대수익 중 4월 귀속분 1,000원을 더한 201,000원이다. 발생비용 중 상품매출원가는 5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40,000원이다. 급여비용은 발생액 전액 10,000원이다. 광고비는 3개월분 중 4월분 1,000원만 비용이다.
3. 발생기준 순이익은 201,000원 - 140,000원 - 10,000원 - 1,000원 = 50,000원이다. 따라서 두 순이익의 차이는 64,000원 - 50,000원 = 14,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현금기준 순이익은 64,000원, 발생기준 순이익은 50,000원이므로 차이는 14,000원이다.
2번 X: 차이를 16,000원으로 보면 재고 관련 발생비용 조정이나 선수·선급의 기간배분 중 하나를 잘못 처리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차이가 14,000원이다.
3번 X: 차이를 18,000원으로 보면 외상매출금 50,000원, 외상매입금 20,000원, 미지급급여 5,000원, 선급광고비 2,000원, 선수임대수익 1,000원의 조정효과를 섞어 계산한 오류이다. 올바르게는 차이가 14,000원이다.
4번 X: 차이를 20,000원으로 보면 상품매출원가를 현금지급액 80,000원으로 보거나 급여·선수·선급 조정을 누락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차이가 1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현금기준에서 상품매입 현금지급액 80,000원을 그대로 비용으로 보고, 발생기준에서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반영한 매출원가 140,000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지급급여, 선급광고비, 선수임대수익의 기간배분까지 함께 조정해야 하는데 한 항목만 빠뜨려도 오답값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비교 문제는 먼저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따로 모은 뒤, 그다음에 외상·미지급·선급·선수·재고를 기간귀속 기준으로 다시 조정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현금기준은 돈의 흐름, 발생기준은 기간귀속이다. 재고는 매입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선수·선급은 당월 귀속분만 반영한다.

NoteBase

문 11. (주)대한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2,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이었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210시간,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이 ₩200이었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① ₩1,700

② ₩1,800

③ ₩1,900

④ ₩2,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율로 계산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과대배부액의 관계를 이용해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2,000원, 예정 직접노무시간 200시간, 실제 직접노무시간 210시간,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 2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다.
주의할 조건은 배부기준이 직접노무시간이므로 실제 배부액은 실제시간 210시간을 써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 예정 직접노무시간이다.
과대배부액은 배부액 - 실제발생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로 실제 조업도에 배부되고, 과대배부액은 그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예정배부율은 $2,000/200 = 10$이다.
2. 실제 배부액은 $10 \times 210 = 2,100$원이다.
3. 과대배부액 200원은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200원 크다는 뜻이므로 실제 발생액은 $2,100 - 200 = 1,9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1,700원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①의 '1,700원'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1,900원'이다.
2번 X: 1,800원은 예산 2,000원에서 과대배부액 200원을 바로 빼서 나온 값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배부액 2,100원을 먼저 구하지 않아 틀린다. ②의 '1,800원'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1,900원'이다.
3번 O: 예정배부율 10과 실제 직접노무시간 210시간을 곱하면 배부액이 2,100원이고, 여기서 과대배부액 200원을 빼면 실제 발생액 1,900원이 된다.
4번 X: 2,000원은 단순히 예산액을 실제 발생액으로 본 값이어서 틀린다. ④의 '2,000원'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1,9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과대배부액 200원을 보자마자 예산 2,000원에서 바로 빼서 1,800원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예산액과 실제 배부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시간 210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상개별원가계산 문제는 예정배부율 산정, 실제 조업도에 따른 배부액 계산, 과대배부 또는 과소배부를 반영한 실제발생액 역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대배부는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큰 상태이므로 실제발생액은 배부액에서 과대배부액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1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

②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③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④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측정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변동대가는 계약상 대가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비현금 대가는 현금이 아닌 자산이나 용역 등으로 받는 대가이며,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기업이 고객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가치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는 표현이다.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기업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 단순 징수액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거래가격은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② O: 변동금액이 포함된 계약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한다. 이는 변동대가의 기본 측정 원칙에 맞다.
③ O: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하면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별도 보완 기준을 적용하지만, 원칙은 공정가치 측정이다.
④ O: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현금성 리베이트나 쿠폰 정산액 등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거래가격을 '계약과 관련해 오간 모든 금액'으로 넓게 이해하면 ①에 속기 쉽다. 출제자는 기업이 자기 몫으로 인식하는 대가와 제삼자를 대신해 걷는 금액을 구별하는지를 노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 측정 문제에서는 먼저 그 금액이 기업 자신의 대가인지부터 본다. 기업이 최종적으로 가질 권리가 없는 금액이면 거래가격에서 제외하고, 고객에게서 받는 형태만 달라진 경우라면 변동대가인지 비현금 대가인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거래가격은 기업 몫만 포함하고, 제삼자 대신 걷은 금액은 제외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당기 실제 제품 생산량은 400개, 직접노무비 실제 발생액은 ₩31,450,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노동시간은 5시간이다. 표준원가계산하에서 계산된 직접노무비 임률차이는 ₩3,700 불리한 차이,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2,250 유리한 차이이다. 직접노무비의 시간당 표준임률은?

① ₩14

② ₩15

③ ₩16

④ ₩1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노무비 차이분석에서 총차이와 표준허용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표준임률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 생산량은 400개이다.
실제 직접노무비는 31,450원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노동시간은 5시간이다.
직접노무비 임률차이는 3,700 불리한 차이이다.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2,250 유리한 차이이다.
구해야 할 값은 시간당 표준임률이다.

사용할 공식

직접노무비 총차이 = 임률차이 + 능률차이
표준직접노무비 = 실제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총차이
시간당 표준임률 = 표준직접노무비 ÷ 표준허용시간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임률차이와 능률차이의 합으로 총차이를 먼저 구하면 표준직접노무비를 역산할 수 있고, 표준허용시간은 실제생산량과 단위당 표준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시간당 표준임률을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직접노무비 총차이는 3,700 불리한 차이와 2,250 유리한 차이를 합한 1,450 불리한 차이이다.
2. 따라서 표준직접노무비는 31,450원 - 1,450원 = 30,000원이다.
3. 표준허용시간은 400 × 5 = 2,000시간이다.
4. 시간당 표준임률은 30,000 ÷ 2,000 = 15이므로 15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시간당 표준임률은 15원이다. 14원은 총차이와 표준허용시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오답값이다. 틀린 표현은 '시간당 표준임률이 14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시간당 표준임률은 15원이다'이다.
② O: 총차이 1,450 불리한 차이를 실제 직접노무비에서 차감하면 표준직접노무비 30,000원이 되고, 이를 표준허용시간 2,000시간으로 나누면 15원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③ X: 16원은 실제 직접노무비 31,450원을 그대로 표준허용시간 2,000시간으로 나눠 반올림할 때 가까워지는 값이다. 실제원가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표준직접노무비 30,000원을 써야 한다. 틀린 표현은 '시간당 표준임률이 16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시간당 표준임률은 15원이다'이다.
④ X: 능률차이 2,250 유리한 차이이므로 2,250 = 15 × (2,000 - 실제작업시간)에서 실제작업시간은 1,850시간이다. 실제 직접노무비 31,450원을 1,850시간으로 나누면 실제임률은 17원이다. 이는 실제임률이지 표준임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시간당 표준임률이 17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시간당 표준임률은 15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불리한 차이와 유리한 차이의 부호를 반대로 처리하거나 실제 직접노무비를 바로 시간으로 나누어 실제임률을 표준임률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17원은 실제임률이라 가장 그럴듯한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이분석 역산 문제는 총차이 계산, 표준직접노무비 역산, 표준허용시간 계산, 표준임률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실제임률과 표준임률을 끝까지 분리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표준임률은 실제원가에서 총차이를 조정해 얻은 표준원가를 표준허용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주)한국에 관한 20×1년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2,000주(액면금액 ₩1,000)
◯ 기초유통우선주식수 1,000주(비누적적·비참가적 전환우선주, 액면금액 ₩1,000, 전환비율 1:1)
◯ 7월 1일 보통주 600주 시장가격으로 발행
◯ 기말까지 미전환된 전환우선주는 액면금액의 5%를 배당
◯ 기중 전환된 우선주는 없었다.
◯ 당기순이익은 ₩1,000,000

① ₩264
② ₩278
③ ₩288
④ ₩303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환우선주가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if-converted 방법으로 분자와 분모를 함께 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기초 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7월 1일 보통주 600주가 추가 발행되었으므로 가중평균 반영분은 600주 × 6/12 = 300주이다.
전환우선주 1,000주는 전환비율 1:1이므로 전환 가정 시 보통주 1,000주가 추가된다.
우선주배당은 1,000주 × 액면금액 1,000원 × 5% = 5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1,00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희석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 + 전환가정으로 소멸되는 우선주배당) /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전환가정 추가주식수)로 계산한다.
이 문제의 전환우선주는 기초부터 존재했고 기중 전환도 없으므로, 희석 계산에서는 기초에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여 분자에 우선주배당 50,000원을 다시 더하고 분모에 보통주 1,000주를 추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본 가중평균보통주식수는 2,000 + 300 = 2,300주이다.
2. 희석 분모는 2,300 + 1,000 = 3,300주이다.
3. 기본주당이익의 분자는 1,000,000 - 50,000 = 950,000원이다.
4. 희석주당이익의 분자는 전환을 가정하므로 950,000 + 50,000 = 1,000,000원이다.
5. 따라서 희석주당이익은 1,000,000 / 3,300 = 303.03원이므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03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264원은 950, 000/3, 600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는 7월 1일 발행한 600주를 연중 전부 반영하고 우선주배당 가산도 누락한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가중평균 추가분은 300주만 반영하고, 희석 분자에는 우선주배당 50,000원을 다시 더해야 하므로 303원이 된다.
2번: X. 278원은 1, 000, 000/3, 600에 가까운 값이다. 이는 우선주배당 가산은 했지만 7월 1일 발행 600주를 반기 가중하지 않고 전부 반영한 오류이다. 올바른 희석 분모는 3,600주가 아니라 3,300주이다.
3번: X. 288원은 950, 000/3, 300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는 전환우선주 1,000주를 분모에는 넣었지만, 전환 가정 시 없어지는 우선주배당 50,000원을 분자에 다시 더하지 않은 오류이다. 올바르게는 분자를 1,000,000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4번: O. 기초 보통주 2,000주와 7월 1일 발행분의 가중평균 300주를 합치면 2,300주이고, 여기에 전환 가정 보통주 1,000주를 더하면 3,300주이다. 분자는 전환 가정으로 우선주배당을 다시 더한 1,000,000원이므로 희석주당이익은 303원이다.

오답 포인트

희석주당이익에서는 분모에 전환주식만 더하고 분자 조정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중 발행 보통주를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중 전체로 넣으면 3,600주로 잘못 계산되어 278원이나 264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증권이 보이면 먼저 기본 가중평균보통주식수를 월할로 계산하고, 그다음 if-converted 가정에 따라 분모에는 추가주식수를 더하고 분자에는 소멸되는 배당이나 이자를 다시 더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희석 EPS는 전환 가정 시 분모는 주식수 증가, 분자는 소멸되는 우선주배당 또는 이자 가산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③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 일반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할 수 없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순자산의 구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처리,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대상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조정 항목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이다.

핵심 구분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모두 취득 후 재평가 대상이다.
유가증권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지속적으로 낮아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2번: O.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하므로 옳다.
3번: O.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므로 옳다.
4번: X. 틀린 표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모두 취득 후 재평가를 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재평가 대상을 일반유형자산으로만 좁혀 기억하면 4번에 속는다. 이 규칙은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재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문항은 정의, 구분, 평가방법, 예외대상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풀린다. 특히 '할 수 없다'처럼 범위를 배제하는 표현이 나오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자산은 3구분, 융자금은 현재가치 차이, 사회기반시설도 재평가 대상이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매월 말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주)한국의 20×1년 3월 31일 수정전시산표상 총수익과 총비용은 각각 ₩10,000과 ₩4,500이다.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 사항이 있다고 할 때, 20×1년 3월 31일에 보고할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 직원의 3월 급여 ₩900이 발생하였으며 4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3월 건물 임대료가 ₩500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수취하지 못하였다.
◯ 건물에 대한 3월 감가상각비가 ₩400이다.
◯ 2월에 구입하여 자산으로 기록한 소모품 중 3월에 사용한 소모품은 ₩200이다.
◯ 2월에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중 3월에 제공한 용역이 ₩1,200이다.

① ₩4,500
② ₩5,200
③ ₩5,700
④ ₩6,1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정전시산표의 총수익과 총비용에 수정분개를 반영하여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정 전 총수익은 10,000원이고 수정 전 총비용은 4,500원이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5,500원이다.
당기 수익 가산 항목은 미수임대료 500원, 선수수익의 수익 전환 1,200원이다.
당기 비용 가산 항목은 미지급급여 900원, 감가상각비 400원, 사용한 소모품 2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수정 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다.

사용할 공식

당기순이익은 수정 후 총수익에서 수정 후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수정 후 총수익은 수정 전 총수익에 당기에 인식할 수익을 더한 금액이다.
수정 후 총비용은 수정 전 총비용에 당기에 인식할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수정분개가 발생주의에 따라 당기 귀속 수익과 비용을 재배치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0원 - 4,500원 = 5,500원이다.
2. 수익은 미수임대료 500원과 선수수익 중 당기 제공분 1,200원을 더해 총 1,700원 증가하므로 수정 후 총수익은 11,700원이다.
3. 비용은 미지급급여 900원, 감가상각비 400원, 사용한 소모품 200원을 더해 총 1,500원 증가하므로 수정 후 총비용은 6,000원이다.
4.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1,700원 - 6,000원 = 5,700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4,500원은 수정 전 총비용 금액일 뿐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수정분개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5,7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4,500원이다'가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5,700원이다'로 고쳐야 한다.
2번: X. 5,200원은 수정으로 증가하는 수익 1,700원과 비용 1,500원을 함께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순증가액은 200원이므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5,500원에서 200원 증가한 5,7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5,200원이다'가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5,700원이다'로 고쳐야 한다.
3번: O. 수정 전 순이익 5,500원에 수정분개 순효과 200원 증가를 반영하면 5,700원이 된다. 수익 1,700원 증가와 비용 1,500원 증가를 모두 반영한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4번: X. 6,100원은 비용 증가분 1,500원보다 수익 증가분 1,700원이 200원 더 크다는 점은 일부 반영했더라도 최종 합계를 과대계상한 값이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5,7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6,100원이다'가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5,700원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수정분개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은 미수수익과 선수수익처럼 수익을 늘리는 항목, 미지급비용과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을 늘리는 항목을 한쪽만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선수수익의 수익 전환을 비용 감소로 착각하거나 소모품 사용액을 자산 감소로만 보고 비용 인식을 빼먹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정 전 순이익을 계산한 뒤 각 수정사항을 수익 증가, 비용 증가, 수익 감소, 비용 감소로 분류한다. 그다음 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만 합산하거나 수정 후 총수익과 총비용을 각각 다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수정분개는 발생주의에 따라 당기 수익은 더하고 당기 비용도 더해 순이익의 순증감만 확인하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6년 4월초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0이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8년 1월초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105,000로 변경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잔존가치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외 다른 회계추정의 변동이 없다면, 20×8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추정치의 변경은 모두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90,000

② ₩120,000

③ ₩165,000

④ ₩22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하던 기계장치에 대해 잔존가치와 상각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일 현재 장부금액과 남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20x8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1,000,000원이고 취득일은 20x6년 4월 초이다.
기존 추정은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원, 연수합계법이다.
20x8년 1월 초에 잔존가치를 105,000원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며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사용할 공식

변경 시점 이후 감가상각비는 변경일 현재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남은 사용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배분한다.
즉, 연간 감가상각비는 (변경일 장부금액-새 잔존가치) ÷ 남은 사용기간 중 해당 연도분의 구조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잔존가치와 상각방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소급수정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수합계는 $4+3+2+1=10$이다. 첫 12개월의 연간 상각액은 $1,000,000 \times \frac{4}{10} = 400,000$원이며, 20x6년은 9개월만 상각하므로 300,000원이다.
2. 20x7년은 첫해 몫의 남은 3개월 100,000원과 둘째 해 몫의 9개월 $1,000,000 \times \frac{3}{10} \times \frac{9}{12} = 225,000$원을 더해 325,000원이다.
3. 따라서 20x8년 1월 초 장부금액은 $1,000,000 - 300,000 - 325,000 = 375,000$원이다.
4. 남은 사용기간은 27개월이므로 새 감가상각대상액은 $375,000 - 105,000 = 270,000$원이고, 월 상각액은 $270,000 \div 27 = 10,000$원이다. 따라서 20x8년 감가상각비는 $10,000 \times 12 = 12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계산 결과는 120,000원이다. 90,000원은 남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잘못 보아 $270,000 \div 3$으로 계산한 값에 가깝다. 올바른 금액은 120,000원이다.
2번 O: 변경일 현재 장부금액 375,000원에서 새 잔존가치 105,000원을 차감하면 270,000원이고, 이를 남은 27개월에 배분하면 월 10,000원이다. 따라서 20x8년 12개월 감가상각비는 120,000원이다.
3번 X: 165,000원은 새 잔존가치 105,000원을 차감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을 잘못 잡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변경 후 감가상각대상액 27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20,000원이다.
4번 X: 220,000원은 연수합계법의 기존 패턴을 그대로 이어 가거나 월할 계산을 누락했을 때 접근하는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정액법 변경 후 남은 27개월에 균등 배분한 12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취득연도에 9개월만 상각했다는 점을 빼먹으면 20x8년 초 장부금액이 틀어진다. 또한 회계추정 변경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되며, 숫자형 선지는 새 잔존가치를 차감했는지와 남은 기간을 개월 수로 잡았는지에서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가상각 추정이 바뀌면 먼저 변경일 현재 장부금액을 기존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다음 새 잔존가치와 남은 사용기간만 반영해 전진적으로 다시 나누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 추정 변경은 소급수정이 아니라 전진처리이며, 월할 상각 문구가 있으면 남은 기간을 연수가 아니라 개월 수로 본다.

NoteBase

문 18. (주)대한의 기초 및 기말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각각 ₩1,000,000과 ₩2,000,000이고, 기초 매출채권 중 절반이 당기 중에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주)대한의 당기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률이 각각 ₩7,500,000과 25%인 경우에 (주)대한의 당기 매출액 중 현금 회수액은?

① ₩7,000,000

② ₩7,500,000

③ ₩8,000,000

④ ₩8,5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출총이익률로 당기 매출액을 구한 뒤, 기초 매출채권 중 미회수분을 반영하여 당기 매출액 중 현금 회수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 매출채권 1,000,000원, 기말 매출채권 2,000,000원, 당기 매출원가 7,500,000원, 매출총이익률 25%이다.
구해야 할 값: 당기 매출액 중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기초 매출채권의 절반만 회수되었으므로 기초 매출채권 미회수분 500,000원이 기말 매출채권에 포함된다.

사용할 공식

매출총이익률 25%는 매출원가율 75%를 뜻하므로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매출액 = (매출원가)/(1-매출총이익률)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이익의 비율이므로, 매출원가가 주어지면 매출원가율로 나누어 전체 매출액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당기 매출액은 7,500,000원 ÷ 0.75 = 10,000,000원이다.
2. 기초 매출채권 1,000,000원 중 절반만 회수되었으므로 기초 매출채권 미회수분은 500,000원이다.
3. 기말 매출채권 2,000,000원 중 500,000원은 기초분이므로, 당기 매출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1,500,000원이다.
4. 따라서 당기 매출액 중 현금 회수액은 10,000,000원 - 1,500,000원 = 8,5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7,000,000원은 기말 매출채권 2,000,000원과 기초 매출채권 1,000,000원을 모두 당기 매출의 미회수분처럼 빼서 이중 차감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기초 매출채권 전액을 당기 미회수분으로 보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기초 매출채권 미회수분 500,000원만 기말 잔액에 포함된다.
2번: X. 7,500,000원은 당기 매출원가와 같은 금액일 뿐 현금 회수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매출원가를 매출 현금회수액으로 보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먼저 매출총이익률로 당기 매출액 10,000,000원을 구한 뒤 미회수분 1,50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3번: X. 8,000,000원은 당기 매출액 10,000,000원에서 기말 매출채권 2,000,000원만 단순 차감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기말 매출채권 전액이 당기 매출의 미회수분이라고 보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그 안에 기초 매출채권 미회수분 500,000원이 포함되므로 당기분 미회수액은 1,500,000원이다.
4번: O. 당기 매출액은 10,000,000원이고, 그중 당기 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당기분은 1,500,000원이므로 현금 회수액은 8,5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 매출채권 2,000,000원을 전부 당기 매출의 미회수분으로 보면 8,000,000원을 고르게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기말 매출채권 안에 기초 매출채권 미회수분 500,000원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채권이 함께 주어지는 계산형 문제는 먼저 매출총이익률로 당기 매출액을 구하고,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을 기초분과 당기분으로 나누어 당기분 미회수액만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말 매출채권 전체를 바로 빼지 않고, 기초분을 먼저 걷어낸 뒤 당기분 미회수액만 차감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및 20×2년도 말 부분재무제표이다. 20×2년도 중에 (주)한국은 ₩2,000을 유상증자하였고 현금배당 ₩3,000, 주식배당을 ₩1,000하였다. (주)한국의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포괄손익은?

구분	20×1년	20×2년
자산 총계	₩ 45,000	₩ 47,000
부채 총계	₩ 15,000	₩ 14,600
당기순이익	₩ 4,000	₩ 1,500

① ₩1,600

② ₩1,700

③ ₩1,800

④ ₩1,9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변동에서 유상증자, 현금배당,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여 기타포괄손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말 자본은 자산 45,000에서 부채 15,000을 차감한 30,000이다.
20×2년 말 자본은 자산 47,000에서 부채 14,600을 차감한 32,400이다.
20×2년도 중 유상증자 2,000이 있었고 현금배당 3,000이 있었으며 주식배당 1,000은 총자본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은 1,500이다.

사용할 공식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유상증자와 총포괄이익을 더하고 현금배당을 차감한 값이다.
따라서 총포괄이익은 기말자본 32,400에서 기초자본 30,000과 유상증자 2,000을 빼고 현금배당 3,000을 더해 3,400이 된다.
기타포괄손익은 총포괄이익 3,400에서 당기순이익 1,500을 차감한 1,9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자본을 30,000으로 계산한다.
2. 기말자본을 32,400으로 계산한다.
3. 총포괄이익을 32,400 - 30,000 - 2,000 + 3,000 = 3,400으로 구한다.
4. 기타포괄손익을 3,400 - 1,500 = 1,900으로 구한다.

선지 판단

1번 X: 기타포괄손익은 1,600이 아니라 1,900이다. 1,600은 현금배당 3,000을 반영하지 않거나 자본변동 항목을 일부 누락할 때 나오는 오답값이다.
2번 X: 기타포괄손익은 1,700이 아니라 1,900이다. 1,700은 유상증자나 배당 중 한 항목을 잘못 처리했을 때 생기는 값이다.
3번 X: 기타포괄손익은 1,800이 아니라 1,900이다. 1,800은 주식배당을 총자본 감소로 잘못 본 경우처럼 자본 내부대체를 손익변동으로 착각할 때 나올 수 있다.
4번 O: 기초자본 30,000, 기말자본 32,400, 유상증자 2,000, 현금배당 3,000을 반영하면 총포괄이익은 3,400이고 여기서 당기순이익 1,500을 빼면 기타포괄손익은 1,900이다.

오답 포인트

주식배당은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총자본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를 현금배당과 같이 총자본 감소로 처리하면 기타포괄손익을 과소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분재무제표로 포괄손익을 역산하는 문제는 먼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계산한 뒤 자본거래와 배당을 구분하여 총포괄이익을 구하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타포괄손익은 총포괄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뺀 값이며, 주식배당은 총자본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주)대한의 20×1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자료의 일부다. (주)대한이 20×1년 현금흐름표에 표시할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은?

구분	전기 말	당기 말	당기발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90,000	₩75,000	
기계장치	₩4,650,000	₩5,1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25,000	₩1,545,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5,000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300,000
기계장치 처분이익			₩75,000

<추가자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이다.

○ ₩750,000의 기계장치 취득거래가 발생하였다.

○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① ₩525,000 유출

② ₩555,000 유출

③ ₩630,000 유출

④ ₩665,000 유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흐름표에서 단기매매목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투자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기계장치의 취득·처분 현금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계장치 원가 잔액은 전기 말 4,650,000원, 당기 말 5,100,000원이고, 당기 취득액은 750,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전기 말 1,425,000원, 당기 말 1,545,000원이며, 당기 감가상각비는 300,000원이다.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75,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이다.
주의할 조건: 단기매매목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매매를 위한 자산이므로 이 문항의 투자활동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용할 공식

처분자산 원가 = 기초 원가 + 당기 취득원가 - 기말 원가
처분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 -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처분대금 = 처분자산 장부가액 + 처분이익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 유형자산 처분대금 유입 - 유형자산 취득대금 유출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실제 취득대금과 처분대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처분이익은 현금유입액 자체가 아니므로,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을 먼저 복원한 뒤 처분대금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처분한 기계장치의 원가는 4,650,000 + 750,000 - 5,100,000 = 300,000원이다.
2. 처분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425,000 + 300,000 - 1,545,000 = 180,000원이다.
3. 처분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300,000 - 180,000 = 120,000원이다.
4. 처분대금은 장부가액 120,000원에 처분이익 75,000원을 더한 195,000원이다.
5.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처분대금 유입 195,000원 - 취득대금 유출 750,000원 = -555,000원이므로 555,000원 유출이다.

선지 판단

1번 X: 순현금흐름은 555,000원 유출이므로 525,000원 유출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잘못 크게 잡은 값이며, 올바르게는 555,000원 유출이다.
2번 O: 처분원가 300,000원, 처분 감가상각누계액 180,000원, 장부가액 120,000원, 처분대금 195,000원을 거쳐 계산하면 555,000원 유출이 된다. 따라서 2번이 맞다.
3번 X: 630,000원 유출은 처분이익 75,000원을 반영하지 않고 장부가액 120,000원만 회수한 것으로 보면 나오는 값이다. 처분대금은 195,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555,000원 유출이다.
4번 X: 665,000원 유출은 기계장치 처분대금을 과소계상한 값이다. 실제 처분대금은 195,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555,000원 유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감을 투자활동에 섞거나, 처분이익 75,000원을 곧바로 현금유입으로 보는 순간 오답이 된다. 처분이익은 처분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이이므로 장부가액 복원이 먼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투자활동 문제는 원가 계정으로 처분자산 원가를 찾고,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으로 처분누계액을 찾은 뒤, 장부가액과 처분손익으로 실제 처분대금을 복원하여 순현금흐름을 계산한다. 단기매매목적 금융자산은 투자활동에서 먼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활동 유형자산 문제는 처분원가 → 처분누계액 → 장부가액 → 처분대금 → 순현금흐름 순서로 푼다.

NoteBase